

한국과 프랑스 학술·문화 교류 기여 공로 인정받아

조화림 전북대 교수, 프랑스 정부 훈장 수훈

전북대학교 조화림 교수(프랑스학과)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슈발리에 학술훈장 기사장을 받았다. 슈발리에 훈장은 1808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프랑스 훈장으로 정치와 경제, 문화, 문학, 학술 등 각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여



하고 있다. 전북대에서 프랑스 통으로 통하는 조 교수는 특히 한국과 프랑스의 학술 및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훈장을 받게 됐다. 조 교수는 파리 에스트 마르 라 발레 대학에서 석사 과정 강의와 세미나를 맡았고 파리 누벨 소르본느, 파리 국립부이뤘미에르영화학교 등과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프랑스 주요 대학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이끌었다.

특히 파리 에스트 마르 라 발레 대학교 영화영상 학부 학생들과 전북대 학생들이 바르코 영상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영상물 '투르르 박물관 오디토리움에서 상영했고 프랑스에서 홍상수와 김기덕 감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논문집지 'Misc au point' 에 논문을 기고하는 등 영화·영상 분야에서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다. 내년 1월에도 파리 누벨 소르본느 대학에서 박사 과정 학생들을 위한 초청 세미나와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최연성 군산대 교수, 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차기회장 선출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최연성 교수가 최근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단체이다. 최교수는 현재 군산대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장과 새만금ICT융합인재양성사업단장을 맡고 있고, 군산대학교 두뇌한국(BK21) 전자정보인력양성사업단장, NURI메디드정문인력양성사업단장 등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주요 사업단장을 역임했다. 최연성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학회의 다양한 학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회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학회 발전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군산=김필곤 기자

무주군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자아완성 나와 우리 법 체험' 실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서정분)는 지난 21일 무주초등학교, 무주중앙초등학교 5~6학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위기(가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으로 포래관계 향상을 위한 '청소년 자아완성 나와 우리 법(Law)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 된 법체험활동(이하, 청소년 자아완성 나와 우리 법체험활동)은 대전광역시에서 위치한 솔로몬 로(Law)파크 및 대전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포래관계의 개선 및 안정을 위하여 원만한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솔로몬로파크에서 국회·사법부·정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명확하고 올바른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위법행동을 예방하며 각 기관의 역할체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진로 직업의 체험 중심 교육을 제시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썼다.

이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전기·레이저쇼, VR체험, 음향 진공관 전시장, 드론, 모션캡처 등의 몸으로 느끼는 과학체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 체험으로 청소년의 진로에 폭넓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점진적인 교육에도 공유했다.

서정분 소장은 "포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자주 접하게 하고, 공동과제 수행으로 서로의 감정을 찾아주고, 다양한 해소방법을 접하며 포래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만들어 사회문제인 왕따 등의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해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전한 청소년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자원봉사센터, '따뜻한 겨울 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정읍시와 (사)정읍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영대)가 지난 21일 '따뜻한 겨울 나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당일 김생기 시장과 김영대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및 임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은 장애와 노환으로 참여하는 박모(71) 할아버지 댁에 4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박 할아버지는 "올해는 추위가 일찍 찾아와 연탄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연탄을 지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다.

직접 연탄 배달에 나선 김 시장은 "이번에 전달해 드린 연탄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온정을 나눔으로써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와 자원봉사센터는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전달해 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가져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회장 황의탁)는 지난 21~22일 2일간에 걸쳐 소방사에서 관내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6개읍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1000포기)를 담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했다.



이날 6개 읍면 새마을운동협의회 부녀회 60여명이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황의탁 회장은 "나눔 배려 봉사는 사회적 덕목을 실현을 위해 작은 김장나눔 행사로 겨울철 춥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 전해졌으면 한다"며 "봉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주는 역할의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송열 의장도 김장 나눔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해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2)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부)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용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021-3386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서산지사 010-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호주지사 010-6645-9335	광주지사 010-6789-0338	남원지사 021-3386
	익산지사 859-9323	정읍지사 538-3387
	부안지사 010-2425-4182	장수지사 010-3882-9157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 288-9700

임실은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속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콤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li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절건고추

고춧가루